

##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	Pianist
* Call to Worship .....	Pastor
Praise & Worship .....	Praise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YoungSook Lee (Kwonsa)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asto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Matthew 27:45-54 .....
Anthem .....	Jerusalem Choir
Sermon .....	"Descent into Hell" .....
* Hymn .....	151 .....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Congregation

(\* Please stand)

### “Descent into Hellh”

The statement in the Apostles' Creed, "He descended into hell," is such a controversial statement that some Christian denominations and churches prefer to delete it from the Creed altogether. A major reason for such a negative reaction is that the statement regarding Christ's descent to a literal place of torment called "hell" conjures up so much speculative imageries of the apocryphal writings (as well depicted in Dante's "Inferno"). The fact that this statement was a later addition to the Creed makes it even more a suspect of theological production of Roman Catholicism. Others would prefer to interpret "hell" as simply the intermediary abode of the dead (equivalent to "sheol" in Hebrew and "hades" in Greek) until the final day of judgment. This, of course, is to reject the literal understanding of "hell" as the place of judgment and suffering (equivalent to "Gehinnom" in Hebrew and "Ge'enna" in Greek). Martin Luther, however, understood hell in a literal sense, but interpreted Christ's descent into hell as the means by which Christ conquered Satan and destroyed the power of hell. This would technically link Christ's descent to His resurrection rather than to His death and burial. John Calvin, on the other hand, linked the concept of Christ's "descent into hell" directly to the crucifixion event, but interpreted hell in a spiritual sense of divine foresakenment which Christ suffered on the cros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t.27:46). In other words, what Christ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crucifixion and death--had a most profound spiritual (and existential) dimension. Such an immense suffering of the Son of God--bearing all our sins, being alienated from the presence of His Father--is not something that we could possibly imagine or fathom. Rather, it simply demands our utmost in terms of our surrender, trust, and devotion to Him. As the centurion, having witnessed the final moment of Christ's agony on the cross, confessed,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v.54).

#### Announcements


-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pray for you.
-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10:00 am (Room 104) - Leadership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2:00 pm (Room 104) - Children's Sunday School Class (led by Cing and Shin Hye)
  -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and Sally Khokhar)
  - 1:00 pm (Room 104) - "Christian Doctrine" Study (led by Jimmy Eppley)
  - 1:00 pm (2nd floor) - "Romans" Bible Study (led by Vung Zam Cing)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소 망 부	오전 10시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예 배	오전 11시20분
유년부	오전 9시	701 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1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2 부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월일반	오전 10시20분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일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재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천세종 심진희 정대은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천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장재원 이진광 고수은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골주하나, 김모세·이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김혜정, 바킷찬,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인(말라위), 서광중·이상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태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함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홍유아 땅, 땅,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싹다, 사우, 카을, 랑, 흐라, 라비, 벨, 비에, 마을, 차, 짜우, 마카델(미얀마) 필리모, 프르산포, 루세시, 수바씩, 이경명, 알로로, 비시누보도, 보디소포, 린토, 수만존(방글라데시), 김대식, 윤양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h1>서울교회</h1>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예수님의 세례식” (“Baptism Ceremony of Jesus”)

■ 마 3:13-1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르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세례를 받으셨던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에도 세례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예식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지 하나님께 성경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뿌리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살 수 없는 인생이 이제 다시 물에서 살아 나왔는데,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 세례는 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때' 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 이셨지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목사의 일이셨습니다. 이제 이 세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상 사역에 돌입하십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turning point였다 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선다는 의미이고, 모든 부끄러운 것 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3. 세례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예수님은 이 세례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 즉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식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공개적인 고백을 담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그분에 대한 신앙과 사랑과 헌신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랑이 가짜이거나, 공개할 만큼 사랑이 깊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을 얻는다는 중요한 순간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turning point 전환점이며, 또한 주님께 대한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2016년도 그 첫 번째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 축하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격월로 있는 세례식에 꼭 참여하여 세례를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곧 세례를 받게 되실 모든 성도님들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박영준 목사	오정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최차순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임상현 장로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84:5-7 ..... 인 도 자  
 찬 송 ... 455(507) / 445(502) ... 다 함 께  
 기 도 ..... 노재현 집사  
 성 경 ..... 신 5:12-15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 제 4 계명 “ ..... 설 교 자  
 \* 찬 송 ..... 43(57)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 I부: 정영욱 권사 II부: 고영숙 권사  
 성 경 ..... 약 5:19-2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 설 교 자

##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김양언

설 교 ..... 박노철 · 서준권 목사

##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2층

설 교 ..... 박영준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가브리엘		임아름
II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류총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남창	
찬양예배	베들레헬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행 10:47)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오늘의 성구			
수요 I부	은 빛	박대경	김현정15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 교 회 소 식

#### ◆ 모 임

- 계2권사회 직장인 모임 / 28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선교위원회 모임 / 28일(주) 오후3시30분 903호
- 1교구 연합다락방 모임 / 3월4일(금) 오전10시30분 501호
- 13교구 연합다락방 모임 / 3월4일(금) 오전10시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스데반회 3월 월례회 및 특강(강사 노문환 장로) / 5일(토) 오후3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남선교회 연합예배 및 월례회 / 5일(토) 오후5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전 도 / 28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손레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월1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차삼성, 도곡레이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2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마리아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아카데미, 스테반회(한티공원)

3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러키, 개포주공6,7단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5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발립 선교회(한티공원)

####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헬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경란	13-14	뵤뵤	화평팀	김태희6	1-8	도르가	자비팀	신강현	교육1국	유년부	화평팀
최귀숙	1-26	루디아	화평팀	오준혁	교육2국	중등부	오준성	박시현2	교육1국	유치부	본인
신의섭	1-26	안드레	화평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주중에도 상담 가능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 의료 상담 / 안인호(아비인후과) 주일 오전 10시3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 결 혼

- 엄기호 군(故염광남, 조현서 씨의 장남)과 강나영 양(13교구 강희복 성도, 이영임 권사의 장녀) / 3월5일(토) 오전11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웨딩홀(3285-2115) /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하차 후 5511버스

#### ◆ 장례

- 故 박 호 권사(12교구 오숙희 성도의 모친) / 2월21일 별세, 23일(화) 발인

## 🌳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현재였던 것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과거로 만들면서 새 현재를 도입시키는 비판적인 제 행동의 연속을 역사라고 정의한다면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은 물결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역사의 변천에 맡겨진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희랍의 비극이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숙명이 인간을 짓밟는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광세에서 우주가 인간을 말살한다 해도 인간은 우주보다 더 고귀한 존재라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만 우주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를 인식하되 자기의 비참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금수들은 자기의 비참을 모른다.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인식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 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본 자만이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케 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십시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